

# “탁상행정 아닌 맞춤형 지원책 마련”

##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 11대 의회 첫 현장업무점검 산업위기지 성장 노력 주문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9일, 11대 의회에 들어 첫 현장 업무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전북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 등을 차례로 방문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농산경 위원들은 현지 시설들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챙겼다. 먼저 전주 팔복동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에서 나기학(군산1)의원은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 협력업체의 기술 애로 발굴 상담 실적이 미흡함을 지

적하며 “조선밀집지역 현장지원반 운영이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찾아가는 민원창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및 지업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도 김정수(익산2)의원은 “짧은 기간 무리한 추진으로 중구난방식 사업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제기하면서 기업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영근(전주2)의원은 “TP의 중점 추진계획인 전략기업 투자유치 목표가 4건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게 설정됐다”고 꼬집으며 “우량기업 투자유치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쉬운 목표치로 면피하기보다 TP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치기업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만기(고창2)의원은 “총사업비가

114억원에 달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이 계획수립에만 지체됐고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면서 구체적인 사업프로그램을 주문했다. 최영심(정의당 비례)의원은 “신규 사업인 스타기업 육성이 기존 사업들과 차별성이 없다”면서 중복지원 방지책을 요구했고, 김철수(정읍1)의원은 입주기업 현황과 이익 미진한 점을 꼬집으며 입주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황영석(김제1)의원은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막대한 상황에서 테크노파크와 관련 기업과의 유착관계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각별히 조언하기도 했다. 강용구(남원2)위원장은 “TP가 예산이나 인력만으로 보면 매년 성장세를 보이며 산업혁신의 허브로 거듭

났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실제 경제난에 빠진 전북상황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성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 조직 몸집 부풀리기가 아닌 전북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업무보고 후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농산경위원회는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날 오후에 생물산업진흥원으로 장소를 옮긴 농산경 위원들은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의 확산과 성과를 주문했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선 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위기에 처한 재단의 채신노력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 최재성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 입법권력 교체 등 공약 발표



아울러 “2015년 당이 분당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과 깊이 소통하며 특목으로 돌파했다”며 “최재성이 당정의 신동반적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친문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단일화란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며 “생각 또는 행보, 비전이 비슷한 사람이 함께 출마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부터 (단일화 논의) 해왔다. 일부는 불출마하고 일부는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진표 의원과 단일화에 대해 “2004년 열린우리당 이후 우리에게는 혁신이 없었다. 2004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김진표 의원의 영광스러운 경쟁을 하겠다”며 “신배 정치인들의 탁월한 능력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전 당원과 전 대의원의 투표로만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략공천을 금지하겠다. 꼭 필요한 경우 전략공천지역을 지도부가 아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최 의원은 “그간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분당되거나 심하게 흔들리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 만병의 근원이 공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유일한 해법은 불가역적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 대표가 되면, 취임 2개월 내에 공천표를 확정하겠다”며 “모든 공천규정을 특별당규로 정하고, 전 당원과 전 대의원의 투표로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략공천을 금지하겠다. 꼭 필요한 경우 전략공천지역을 지도부가 아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당정관계에 대한 입장도 내놴. 최 의원은 “여당 대표는 안 보이는 것을 감수해야 하므로, 무턱대고 할 말은 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명 받고 움직이는 대표도 불필요하다”며 “대신 정책과 정부에서 이점이 있을 때 대통령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년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4월에 이어 2차 새만금사업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새만금사업 조기 완공 가속페달 밟는다

### 이춘석 의원, 2차 정책포럼 개최... 제도 개선 필요 과제 점검 등 머리 맞대

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앞두고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년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4월에 이어 2차 새만금사업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에도 1차 포럼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광수·김종희·안호영·유성업·이용호·이

춘석·정동영·정운천·조배숙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전북지역 도내 의원들이 모두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전북도 및 새만금개발청이 후원에 나섰다. 이날 포럼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19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과 아울러 기업 유치 등에 있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그 실행전략

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남궁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해양수산부 항만국의 임현철 국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새만금 실행만 개발에 있어서 선도적 재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이어서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의 필요성 및 효율적 추진방안'을,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 국장이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개선 추진 현황 및 그 필요성'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태림 군산대학교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정책사업단장,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각각의 발제에 대해 열띤 제안과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정책포럼을 주관한 이 의원은 “새만금 통과로 새만금개발공사라는 최소한의 실행 기구는 갖췄지만, 충분한 예산 투입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새만금 조기 완공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 “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 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기존의 틀과 관례를 깨고 '새만금식 모델'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민주당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판결 존중”

### 진실규명·재방방지에 최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깊이 존중한다”면서도 “진실규명과 재방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국가배상 판결은 정권안보를 위해 유가족들을 보상금으로 회통하고 그제 안 되면 유가족들을 정치공작으로 분열시키고 모욕하려는 뜻된 이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에 대해 절

퇴를 내린 판결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진실과 정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 4년간의 가나간 싸움을 전개한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재방방지를 위한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등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